

데스크 시각



박석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문학은 모든 문화예술의 기본이다’라는 말이 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문학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의미하는 정의다. 예술 작품을 해석하거나 텍스트화 하는 데 있어 문학은 불가할 장르는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뛰어난 작품도 이를 소개할 평론이나 비평이 없다면 심미적인 가치가 온전히 전달될 수 없다.

문학관은 작가의 생애와 문학 세계가 응결된 공간이다. 문학을 매개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문화관광의 구성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실 작가와 관련한 자료 보관의 기능은 일차원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의 문학관은 복합 문화 공간을 넘어 사람과 문화, 예술이 교류되는 플랫폼 기능을 아우른다.

문화중심도시 첫 문학관 ‘결실’

한때 광주는 5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적어도 지난날 북구 각화동에 개관한 광주문학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명색이 문화중심도시라는 예함에 문학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었다. 그만큼 문학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는데, 기실 그 중요성이 간과됐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은펜칼럼



박행순 전남대 명예교수 (전)카트만두대학교 객원교수

올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7.24도를 기록했고 해마다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월 중순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7월 초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었다.

이런 폭염 기간에 필자는 시원하다 못 해 험령한 여름을 보냈다. 햇볕이 뜨거워지기 전에 집을 나서 근처 시립도서관으로 향하면 30분이 채 못 걸렸고 약 3000 걸음에 2km 거리, 100kcal 쯤 소모되었다고 측정기가 알려준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섭씨 25도의 실내온도가 약간 춥게 느껴진다.

도서관에서는 상호 대차 시스템으로 타 도서관의 책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열람실은 추석과 설, 명절 당일만 빼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된다. 사물함에서 책과 독서대를 챙겨 자리를 잡고 앉으면 아침 세 시간 가량을 독서에 집중할 수 있다. 가족, 친지들이 주는 책을 다 받아왔더니 분야가 다양하다. 한정된 공간에 책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되지만 밑줄을 긋고 여백

기고



정은진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해빙으로 뒤덮여 있던 북극에 오징어가? 해빙 대신 망명대해가 펼쳐진 북극, 지난 7월 광양항을 출발 북위 80도의 극지방 탐사에 나선던 한국 대원들은 북극곰 대신 오징어를 발견하고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빠른 수준으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북극에서 2030년쯤 해빙이 완전 소멸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북반구의 여름은 북극발 폭염이, 겨울에는 북극발 한파가 일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 여름 이란에서는 섭씨 60도를 넘어선 폭염이 인간 생존 자체를 위협했고, 섭씨 50도를 넘어선 고온에 달궈진 맨홀 뚜껑에서 고기를 굽는 중국인들의 웃픈 영상이 기후 재앙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화산 동북면 상수원 고갈을 걱정해 했던 봄철 가뭄, 연일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올 겨울 광주는, 경험해보지 못한 혹한에 시달릴 가능성 앞에 놓여 있다.

광주는 2020년 ‘2045 탄소중립+에너지 자립’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것도 잠시, 배출량이 다시 늘어 지난 10년간 광주시민 1인당 배출량은 15% 증가했다. 주요 간선도로를 짝 매우고 있는 1인 탑승 승용

광주문학관, 그 정신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문학관 하나 없는 도시였지만 광주에는 내로라하는 문인들은 많다. 현대시학의 대표적인 시인인 ‘나도야간다’의 용아 박용철을 비롯해 “우리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로 시작되는 동요 ‘강아지’를 작사한 김태오, 양림동의 언덕과 무등산을 바라보며 시심을 키웠던 ‘고독과 커피의 시인’ 다형 김현승은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들이다. 그뿐인가. 2016년 맨 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을 비롯해 그녀의 부친이자 이상문학상 수상 소설가인 한승원, 전남대 교수를 역임했던 ‘늑두장군’의 송기숙, 민중의 한을 탁월하게 그렸던 문순태는 모두 광주를 기반으로 또는 광주 정신을 모티브로 창작활동을 펼쳤던 작가들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위대한 문인과 문학관은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직결된다.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는 그 자체로 ‘국부(國富)다. ‘영국=셰익스피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의 4대 비극을 포함한 많은 작품들은 끊임없이 영화와 연극, 뮤지컬로 재창작되고 있다. 무엇보다 ‘셰익스피어’라는 브랜드의 힘은 그의 고향에서 여전히 증명되는데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은 작은 도시임에도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세계 도처에서 방문한다. 주민들 상당수는 셰익스피어 관련 문화관광사업에 종사하며,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은 매일 작품을 공연한다.

최명희문학관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한 대표 문화공간이다. 문학관 인근에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 문화가 집약된 한옥들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하루 평균(휴관일 제외) 500여 명, 연간 약 14만 여명이 방문할 만큼 전주의 핫 플레이스가 된 지 오래다. 생전의 최명희 작가는 ‘언어는 정신의 지분’이라고 명명할 만큼 우리의 고유 언어에 대한 정지한 미의식을 증명 ‘흔들’에 두

였했다. 한옥 구조의 문학관은 그러한 작가의 장인정신이 집약된 곳으로 매년 지역 특성에 기반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8년 지난한 과정 되풀이 안돼

지난 2006년 건립 논의를 시작해 18여년 만에 개관한 광주문학관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지역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이 십 수년만에 결실을 맺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5대 광역시 가운데 문학관 하나 없는 불명예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일말의 성과다. 지상 4층 규모인 이곳은 상설, 기획 전시실 외에도 영상자료실, 창작실, 세미나실, 다목적 홀, 카페,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변에 미술관을 비롯해 청소년문화의집, 각화저수지 수변공원 등이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외곽에 자리한 이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작고한 문인들의 유품, 유품 원고 같은 1차적 자료 확보 외에도 광주문학관에서만 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무엇보다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사람과 문화, 예술이 교류하는 복합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은 물론 지친 현대인들에게 쉼과 힐링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면들도 없지 않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갯밭예만 관심이 있는’ 이들이 있을까 싶어서다. 문학관 건립에 18년이나 소요된 데는 문학단체들 간의 알력, ‘함량 미달’ 문학인들의 불행사나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개관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불현듯 신동엽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해 한마다 고언을 하고 싶다. ‘광주문학관의 그 정신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도서관과 복지관의 인접효과

에 요점이나 설명을 적어 넣을 수 있는 내 책을 갖는 것이 좋다. 더구나 이렇게 손대 문은 책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서 책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읽고 싶어서 사지만 1000 페이지가 넘는, 너무 두꺼워 손이 안 가던 세계역사를 읽고 나니 오래전 선물 받아 책장에 꽂아두었던 조선왕조실록도 읽고 싶었다. 두 역사책의 엄연한 공통점은 시대와 장소, 인물만 다를 뿐 권력 쟁탈을 위한 수많은 살육이었다. 정적이나 형제들을 죽이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부자간에도 피를 흘렸다.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십 년의 권력을 손에 쥐었으나 결국은 모두 죽음으로 끝났으며 이들이 남기는 마지막 말들은 허무하기만 하다. 서기 68년에서 69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는 네 번이나 바뀌었다. 이때 처형장에 선 54세의 비텔리우스는 “그래도 한때 나는 너희들의 황제였다”라고 절규했다.

정재승 교수의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는 과학적 정보가 풍부하여 대단히 유익할 뿐 아니라 그가 지적하는 ‘육에 티’는 예리하고 재미있다. 관련 영화들을 밥 속의 돌을 골라내듯 ‘육에 티’를 찾아내며 보는 재미는 저자의 말마따나 밥보다 맛있다.

도서관과 같은 율타리 안에 지상 3층 건물의 노인복지관이 있다. 바깥 잔디밭 주위에는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안에는 탁구, 당구, 체력 단련실에 바둑, 장기, 서예 등의 취미실과 교육실들이 있다. 지하에는 연일 사오백 명이 3500원에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는 넓은 식당도 있다. 8월부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저렴한 수강료를 내고 참가할 수 있었다. 책 읽는 중간에 머기도 쉬고 운동도 할 겸, 실버 에어로빅과 한국무용, 그리고 기타를 배운다.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빠르게 움직이는 실버 에어로빅의 열기는 뜨겁고 우리 기락에 맞추어 부드럽게 추는 한국무용은 노인들에게 무리하지 않는 운동으로도 적격이다. 이 반의 최고령자는 88세, 최연소자는 복지관 회원 자격을 갖 획득한 60세이다.

아침부터 도서관에서 맑게 책을 읽고 복지관에서 점심식사 후에는 야외 벤치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다. 한여름에는 분수터에서 물 맞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느긋하게 구경하는 것도 좋았다. 이 야외 공간은 복지관과 도서관 이용자들, 이웃 주민들과 반려견들도 공유한다.

오후에도 몇 시간 책을 읽다 보면 어느덧 낮이 기울고 땅거미가 내려앉는다. 걸어서 집에 오는 길에 목표한 7000 걸음을 달성했다고 후후룩하고 폰 어플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도 기분 좋다.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걷고 주 4회 한 시간 넘게 춤추고 땀을 흘렸더니 천천히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고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머릿속 지식은 늘어나고 피하지방은 줄어들고 운동과 독서는 체에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 기하 일석삼조(一石三鳥)다. 도서관과 복지관이 인접해 있으니 이렇듯 심신을 위한 상승효과를 내려 행복지수를 올려준다.

아파트 미니 태양광발전을 광주의 랜드마크로

차 물결이 우리의 기후 불감증을 보여준다. 직주근접이 요원하고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정책 목표와 이행계획 사이의 괴리는 멀기만 하다. 뿐이라. 야심 찬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건립한 햇빛발전소는 40MW에 그쳤다.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내건 계획 수립 직후 성과치고는 좀 초라하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는 현재 7.2%의 전력 자립률을 2045년까지 50%로 끌어올리되,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2022년 속도대로 2045년까지 해마다 40MW를 늘려간다면 광주는 목표연도에 1.2GW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갖추고 적어도 전력수요의 18%는 광주는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 142만 명의 광역도시에서 햇빛발전소 부지 찾기가 쉬운 일인가. 부지 찾기와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면, 계획서는 또다시 캐비닛 안에서 썩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외침이 공염불에 그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광주시와 5개 구청,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건물 옥상과 주차장에 햇빛발전소를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사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2015년 광주에 첫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출범한 이후 현재 9개의 시민참여형 햇빛조합이 에너지 전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공공기관이 비어 있는 부지를 빌려 발전소를 세우고 발전수익금을 시민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 실천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태양광발전 패널 1kW의 연간 탄소 감축량은 0.5~0.63톤. 아파트 베란다용 350W 규모의 소형 패널도 연간 0.22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20년 수명의 참나무 1그루의 연

간 흡수 탄소가 0.22톤.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20년생 참나무 1그루를 베란다에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햇빛발전의 탄소감축 기여도가 이러한에도, 광주의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들은 발전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지체하고 있다. 비어 있는 공공기관 유휴부지의 햇빛발전소 이용과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이미 일상화되었음에도 기후대응 문제가 시장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후위기 대응, RE100, 탄소중립을 향한 지구적 노력에 역행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광주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면서 기업과 시민이 보유한 민간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간다면 ‘2045 탄소중립+에너지전환’으로 가는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을 까. 이를 위해, 제2소환도로를 비롯한 중대형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물론,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를 제안한다. 광주시민의 8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면 부지 찾기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것은 물론 무려 200MW 가까운 발전설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베란다 난간에서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 매력적이지 않은가, 광주의 랜드마크로.

지구의 차가운 심장인 북극해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모아 ‘2045 광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 목표를 향해 전방위적인 실천 노력을 펼쳐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社說

담임 기피현상 심화...기간제에 짐 지워서야

일선 초·중·고교에서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담임교사 10명 가운데 6명이 기간제 교사였고 전남에선 10년 사이 기간제 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다.

국민의회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른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3.5%이던 기간제 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은 10년만에 60.2%로 6.7% 포인트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2013년 기간제 교사 586명 중 45.9%인 269명이 담임을 맡았지만 2022년에는 694명 중 57.9%인 402명이 담임을 맡아 10년 사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배 가량 됐다. 전남은 2013년 24.1%이던 기간제 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이 지난해에는 44.2%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광주·전남은 아직 전국 평균 비율보다는 낮은 증가세가 가팔라 교육당국의 주시가 필요하다.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교사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은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일선 학교에선 ‘계약을 교원 운영 지침’을 만들어 정규직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업무량 증가와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민원에 부담을 느낀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꺼리면서 그 짐이 기간제 교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무엇보다도 담임 기피의 근본 원인인 행정업무 경감과 교권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업무 속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을 감안해서라도 정규직 교사에게 담임을 맡겨 기간제 교사의 짐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정원박람회 통해 생태도시로 도약하는 순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800만 명을 돌파했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커플이 지난 7일 오전에 800만 번째로 입장했다. 관람객 800만 명은 순천시민(28만 명)의 3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정원에 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4월 1일 개장 후 12일 만에 100만 명, 40일째에 300만 명, 149일째에 60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다. 특히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기간 100만 여명이 방문했다.

이처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인기를 모은 까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절실한 ‘자연’과 ‘힐링’을 순천만 국가정원과 도심, 순천만 습지에 구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수목과 계절 꽃들로 단장된 국가정원 등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과 생태를 음미하고 정원의 매력을 만끽

했다.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어싱(earthing) 길’을 국가정원 등 8개소에 조성해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자동차가 질주하던 아스팔트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한 ‘그린 아일랜드’ 발상도 신선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시는 생태도시로 도약했다.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순천시를 찾는 지자체와 단체, 기관, 기업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순천만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시작된 작은 발걸음이 한 도시를 대표하는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오는 31일 폐막한다. ‘생태도시’라는 도시 브랜드와 순천만 습지,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의 미래를 견인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생태도시의 마스터플랜을 펼쳐 나가야 한다.

無等鼓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경력이나 정치 비전 제시 없이 특정 정치인의 이름만 팔고 다니는 후보들이 상당수 있다. 유명 정치인의 후광을 업고자 하는 선거 전략이긴 하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바뀌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 팔이’는 유권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과거에도 많은 광주·전남지역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연과 경력을 앞세웠다. 대부분 자신의 경력에 이들의 이름을 앞세워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친명 팔이

1990년대와 2000년 대 초반까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과 관련된 경력을 사용했다. 이어 ‘친노’(친 노무현) ‘친문’(친 문재인)이 등장했다.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대다수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을 앞세워 본인들이 ‘친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친명’(친 이재명)이 대세가 됐다. 그동안 그렇게 ‘친문’이라고 외쳤던 정치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친명 팔이’에 나서고 있

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기결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진명’(진짜 친명)으로 꼽히는 출마 예정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 해 온 사람들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그런데도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이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할 때 단식 장소를 찾아가 이 대표와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올려 마치 ‘진명’ 인양 자신들의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국민의회도 과거 ‘친박’(친 박근혜) 논란으로 분란을 겪으면서 선거를 망쳤다. 지금은 ‘윤심’ 마케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역에서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했다.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비전 제시를 우선해야 한다. 공천만 받고 보자는 식으로, 선거 때만 되면 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파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